石宙明의 野學(필드사이언스)과 鹿兒島高等農林學校의 敎育課程:因果論

전경수(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

1. 서언: “나비박사”

석주명에 대해서는 몇 차례 여러 분들에 의해서 다양한 측면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고, 그 분의 전기까지 발행되어 있는 상태이다.필자도 기왕에 석주명에 관련된 글을 세 편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전경수 2001; 2009.11.30; 2013.6.30),과거에 발표되었던 글의 내용들을 본고에서는 가급적 반복하지 않는다.따라서 독자들께서는 기왕에 발표되었던 글들과 함께 본고를 읽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왕의 논고에서 연보와 업적목록을 상당한 정도로 완성하였다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이번에 확인되었다. 1949년 국립과학박물관에 있었던 그의 연구실을 방문한 기자가 기록한 업적목록의 숫자는 “110편의 동물학적 논문을 발표”(I記者 1949.11.7: 9)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 기자의 진술을 토대로 석주명의 업적목록을 고려한다면, 이제 그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던 글들을 절반 정도 찾았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 같다.앞으로도 그의 업적목록을 보완하는 작업에 몰두해야 할 과제가 생긴 셈이다.

곤충을 중심으로 동물학을 전공하면서 “나비박사”로 알려진 그의 학문 행적에 민속학이라는 단어가 함께 따라 다니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만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 더군다나 석주명의 민속학이 실천된 현장이 제주도라는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의 업적들을 나열해보면, 그가 단지 민속학에 한정된 관심을 보였다기보다는 제주도라는 사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회과학적인 관심을 표현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석주명이 실천하였던 현장에 대한 학문적 관심 즉 일종의 野學(필드사이언스, field science)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속학이란 학문분야에 한정하여 석주명을 평가하는 경향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려고 한다. 필자가 이 지면에서 야학이라고 지정하는 용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다. 이것은 기존의 학문분류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제별에 따라서 분류하는 학문체계와는 별도로‘필드(field)’라고 일컫는 현장을 찾아서 그 ‘필드’에서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에서도 인문사회과학에서도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소설을 쓰는 작가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필드’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야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석주명이 실천하였던 것은 민속학이라기보다는 인문사회과학 전반으로 확대된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그의 관심이 제주도에 집중되었던 업적을 대하고 있다. 그의 제주도 관련 저서들 중에서 <濟州島 方言集>(1947.12.30)을 민속학의 범주에 한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할까? 그는 제주도 방언을 “표준어”에 대응시킨 7천여 어휘집을 보여주면서 생물학자가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특유의 제주도 방언을 채록하였다. 이어서 제주도 방언과 육지의 각 지역들(경상도,전라도, 함경도 등)의 방언들을 대비시키는 한편 제주도 방언과 중세국어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몽고어로부터 차용된 제주도 방언을 별도로 채록하여 몽고어와 대응시킴과 동시에 중국어와 만

주어·및 일본어와도 대응시키는 작업을 시도하였다.민속학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언어학적(또는 방언학적) 연구를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 대한 인구학적 자료조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濟州島生命調査書>(1949)를 민속학에 한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태까지 어떤 민속학자가 석주명의 제주도 인구학적 연구와 같은 작업을 한 적이 있는가? 통계학적(간단하지만)인 작업을 동원한 인구현상에 관한 분석은 사회과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업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대학에서 인구학의 효시를 언급하는 분들이 사회학자 이해영을 거론하고 있지만(김인수 2016), 석주명이 이해영보다도 십년 가까이 일찍이 제주도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업적을 단행본으로 남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의 업적들을 통틀어서 이해하여 요즘 감각으로'학문'분야를 고려해보면, 석주명으로 하여금 생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양수겸장을 하도록 한 기반이 그의 배움 과정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나는 그의 학문을 현대적인 의미의 통합과학이나 학문융합의 수준으로 파악하는 시도는 주저한다.6권으로 간행된 바 있는 그의 <濟州島叢書>가 그의 학문적 범위를 보여주기에 충분하고,이 업적은 여러 분들에 의해서 소개된 바 있다(특히 최낙진 2007.6.15 참조). 그의 눈이 닿고 손길이 뻗친 주제는 통합과학의 영역 또는 여러 학문들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이 문자 그대로 통합적인 성과를 제시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모자람이 있다. 그러나 석주명이 자신의 학문실천을 위해서 답파했던 곳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최소한도 야학(필드사이언스)이라고 부름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있을 수 없다.따라서 나는 석주명을 제주학의 선구자이며'코리아' 야학의 원조라고 지칭함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석주명이 배움의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鹿兒島高等農林學校(이하 '카고시마고농')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야학에 접목이 되었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작성되었다. 말하자면, 나는 인과론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野學者(필드사이언티스트) 석주명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의 교육과정을 밝혀 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석주명의 모교인 카고시마고농과 그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밀도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미리 밝혀두는 바이지만, 카고시마고농의 역대 교과과정 속에서"언어학","인구학", "사회과학","민속학"또는"민속"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정규 또는 부정규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과목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석주명이 카고시마고농으로 진학하기 전에 조선에서 그러한 분야에 대한 공부나 작업을 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없다. 석주명과야학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근거는 카고시마 시절 석주명이 학습하였던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당시 주변의 분위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작업의 일환이 본고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필자는 2014년 6월부터 한 학기간 카고시마대학의 國際島嶼教育센터 객원교수로 체류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 맞추어서 석주명과 관련된 자료를 찾았으며, 주로 카고시마대학의 종합연구박물관과 도서관 그리고 과거의 연습림이 있었던 大隅半島(오-스미한토)의 현장을 찾았다(2014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해변의 모래사장으로 둘러싸인 나비라신사(茗平神社) 부근이 명승지로 이름이 있으며, 어부 한 명이 한 시간동안 작업으로 끌어올린 '이와사자에'(소라의일종)와 '타카지'(일본어 표준어로는 후지쯔보라는 것으로 탐라어로는 보말)를 보는 기회도 있었다. 오-스미한토와 사다로의 여행에는 아내와 더불어서 정승환 군 부부가 함께 하였다. 프로사진가인 정군의 운전실력 덕분에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사다로의 여행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민속학자 야나키타 쿠니오(柳田國男)의 족적(1920년)을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20년대말 석주명이 시간을 보내었던 카고시마고농의 佐多演習林내의 농림실습장을 찾는 것이었다. 현재 카고시마대학농과 대학의 연습림은 동일한 오-스미반도 내이지

만 사다보다도 훨씬 북쪽에 위치한 타카쿠마산지(高隈山地)에 자리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카고시마의 사쿠라지마(櫻島), 이부스키(指宿), 사다(佐多)가 신혼여행지로 이름난 곳이었다. 사다미사키(佐多岬)에 있는 사다등대는 1970년대까지는 유인등대였지만, 현재는 무인등대이다. 지금도 유인등대 당시의 건물들이 일부 흔적으로 남아있다. 사다미사키에서는 대동아전쟁 중 카미카제 특공대의 상징이었던 카이몬타케(開聞岳, 해발924미터)를 바라볼 수 있었고, 柳川勝己(昭和3년2월15일생86세鹿兒島縣南大隅町佐多馬籠485-2)씨의 안내로 1920년 9월 1일 柳田國男이 숙박하였던 타시리(田尻)의 숙소 흔적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1: 사다미사키(佐多岬)전경. 오른편 숲속 쪽으로 카고시마고농의 사다 농림실습장이 있다.

2. 카고시마고농과 타마리 교장





사진2: 카고시마고농의 校旗(현재 카고시마대학 종합연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음)
사진3: 타마리키조 校長흉상(카고시마대학교정에있음)

카고시마고농은 1909년에 설치된 관립의 농학전문학교였다. 당시 일본내에서 가장 먼저 설치되었던 고농은 이와테현모리오카(岩手縣盛岡)의 盛岡高等農林學校(초대교장은 玉利喜造이고, 그의 직무기간은 1903년-1909년)이었고,카고시마고농은 두번째로 설립되었다. 타마리키조

(1856-1931)는 동경제대를 졸업하였고, 일본에서 농학박사 제1호로서 동경제국대학에서 축산학과 원예학 교수를 담당한 뒤, 모리오카고농의 초대교장으로 부임하였다. 그 후 그는 고향에 설립된 카고시마고농의 초대 교장으로 전임하였다. 그가 모리오카고농과카고시마고농 양쪽의 초대 교장을 역임했던 인연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도이와테대학(岩手大學)농학부(전신이모리오카고농)와 카고시마대학농학부(전신이카고시마고농)가 30년넘게 정기적으로 특별한 교류를 하고있다. 타마리키조교장은 일본의 슈켄도(修驗道)에 관련된 자료를 엄청나게 수집한 사람이고, 그 자료들이 현재 카고시마대학에 남아있다. 그의 철학에 기반하여 카고시마고농의 졸업식은“得業式”이라고 명명하였다. 학업을 마친 뒤, 새롭게 업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남방계 식물을 중심으로 자연자원의 중요성을 생각하였던 타마리 교장은 중국의 남쪽에 있는 海南島에 연습림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서 문부성에 신청하였다가 그것이 실패하자, 그는 다시 屋久島에 연습림 설치의 계획을 제안하였으나 그것도 실패하였다. 마지막 대안으로 나온 것이 카고시마현의 오-스미반도 끝에 있는 사다(佐多)의 마고메(馬籠)에 설치한 佐多農林實習場이었다. 이 실습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이 오토마리(大泊)이다.

고농의 수업료는 1년에 3회로 납부하였다. 각각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었다: 1기(4/1-8/31), 2기(9/1-11/30), 3기(1/1-3/31). 本科生은 1기에 30원을 납부하였고, 2-3기에는 25원씩 납부하였다. 選科生은 1기에 20원, 2-3기에 20원씩 납부하였다. 수업료에서 본과생과 선과생의 차이가 있었다. 학칙 제46조에 의하면, 선과생은“本校學科ノ一科目若ハ數科目ヲ選擇專修セムトスル者アルトキハ選科生トシテ在學セシムルコトアルヘシ”고 되어 있다. 어학강좌를 야간수업으로 하였다. 희망자에 한해서 華語와 馬來語를 배울 수 있었다. 석주명이 <濟州島方言集>에서 마래어를 동원할 수 있었던 내력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사진4와5: 원경으로 사쿠라지마와 깅코만을 배경으로 한 카고시마고농의 교사전경
(校友會報25집. 1934년 12월25일발행).

3. 석주명의 은사들: 岡島銀次, 橋本士郎, 內藤喬

석주명이“나비박사”라고 인정되게된 원점은 그의 은사 오카지마 킨지(岡島銀次, 1875-1955)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오카지마교수는 나비연구의 전문가였다. 그는 1875년 후쿠이현(福井縣)에서 태어났고, 1900년 동경제대농학부를 졸업하였다. 山口縣立農業學校에서 교수를 하던 도중 中尉의 계급장을 달고 노일전쟁에 참전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1907년 카고시마고농에 부임하

였으며, 1909년에 발행된 그의 <養蠶論>(東亞公司발행)은 이 분야의 고전으로 평가받았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 후쿠이현 일대의 월전지방은 양잠농업과 생사 원산지로 이름난 곳이었다. 1914년부터 2년간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로 유학하였다. 1921년부터 2년간 그는 구주제국대학농학부의 병임교수를 담당하여 곤충학교실의 창설 주역을 맡기도 하였으며, 1924년에는 구주제대에서 '病虫害同好者の会'를 발기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27년 칙임관이 받는 칙임교수("首席教授"라는 뜻도 포함)가 되었다. 카고시마고농에서는 農學科 第二部主事의 역할을 하였고, 고농내에 博物同好會를 조직하였으며, 카고시마를 무대로 하는 모임인 麑城吟詠會의 부회장도 맡았다. 오카지마교수의 민속학적 저서 <田之神>(岡島銀次1934.11.23)이 돋보이는 것은 카고시마고농의 학문적 전통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카고시마고농의 개교25주년기념으로 발행된 것이며, 총페이지 86장으로서 사진 36매를 첨부하고있다. 그는 1936년 1월 9일 카고시마고농을 퇴임하였고, 퇴임 후에는 동경에 거주하면서 日本大学강사로서 농학부의 곤충학을 담임(1928-1952)하였다. 그의 장서는"岡島文庫"로서 農林省九州農業試驗場에 보존되어 있고, 그가 발표하였던 다양한 논문들은 석주명의 학습과정에 훈습되었을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후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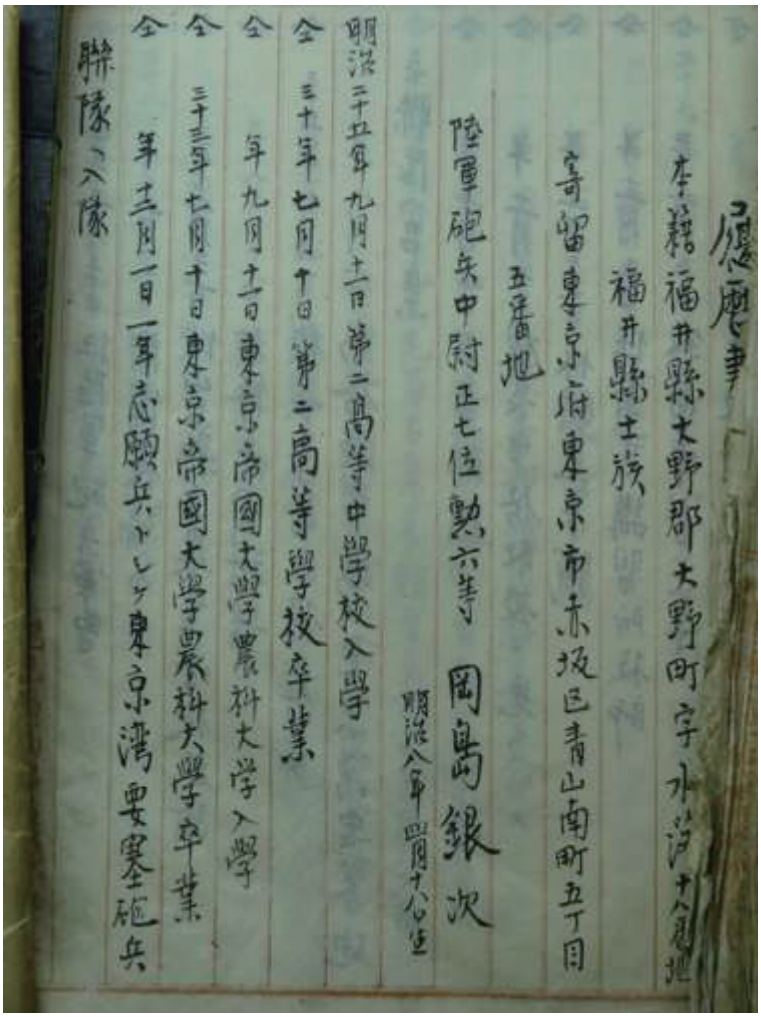

履歷書
本籍福井縣大野郡大野町字
福井縣士族
寄留東京府東京市赤坂區青山南町五丁目
五番地
陸軍砲兵中尉正七位勲六等 岡島銀次
明治二十五年九月十日第二高等中學校入學
仝 三十年七月十日第二高等學校卒業
仝 年九月十日東京帝國大學農科大學入學
仝 三十三年七月十日東京帝國大學農科大學卒業
仝 第三月一日一年志願兵トシテ東京灣要塞砲兵
聯隊ニ入隊

사진6: 岡島銀次의자필이력서(부분): 進退錄
(1909년5월-1918년12월까지, 카고시마대학종합박물관소장)

오카지마교수가 조선의 나비에 관심을 가지고 글 결과를 발표하였던 시기가 1927년이다.그는 카고시마의 키리시마 지방에 분포된 나비들을 정리하면서 조선의 나비 76종을 부록으로 포함하였으며(岡島銀次1927.6.1: 22),이때석주명은카고시마고농의농학과2년생이었다. 오카지마교수의 조선나비 소개에 대한 모종의 불만이 석주명의 학구열에 불을 댕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키리시마 지방의 나비연구에 "附錄"으로 취급되었던 조선나비의 지위를 제대로 규명함에 일생을 바쳤던 석주명을 생각하게 된다.오카지마교수로부터 석주명에 이르기까지 나비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의 학문적인 배경은 응용과학으로서 농학에 있었으며,그들의 주된 과제는 병충해와 관련된 곤충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아름다운 나비에 대한 호기심이 당시 곤충학의 선결과제가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의 안목이다.오카지마교수가 구주제대에서 곤충학교실을 운영하였던 목적과 그곳에서 구주병충해연구회를 조직하였던 목적이 분명하였다.후일 석주명이 카고시마고농의 졸업논문으로서 나방이에 관한 연구를 한 것도 이러한 목적의 실천적인 과제의 일환이었음을 외면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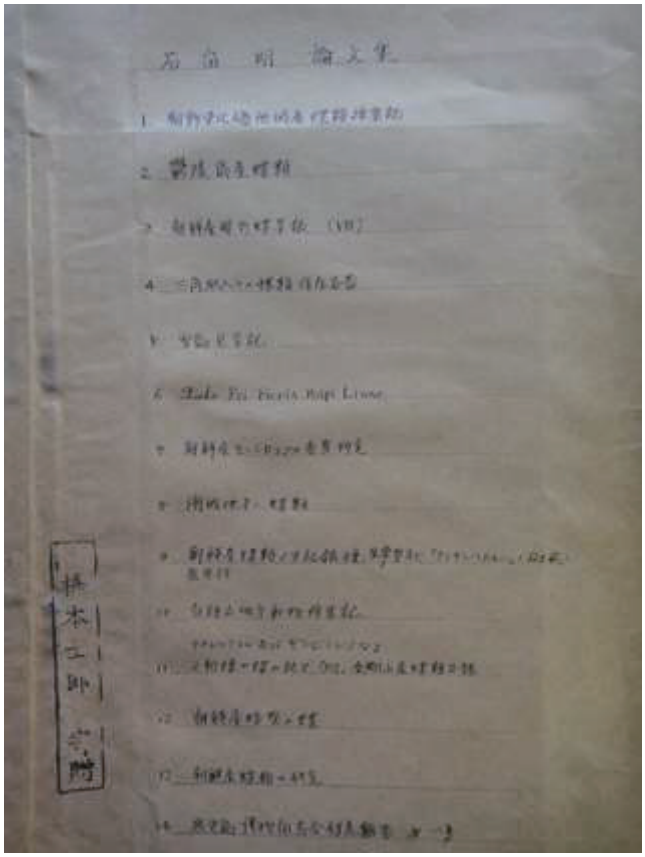


사진7: 하시모토시로 교수가 손으로 만든 <石宙明論文集>
(야마구치대학도서관 소장)

당시 주력산업이었던 농업이란 관점에서 생각하면,농작물에 대한 병충해의 문제는 중요한 학문적/산업적 과제였음을 알 수 있고,나비연구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곤충학적인 과제였던 것이다. 1924년 결성되었던 九州病蟲害研究會의 제3회 회합이 카고시마고농에서 개최되었고(1926년 10월 16일과 17일), 이때의 當番幹事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오카지마교수였다(江崎悌三 1955.6: 3).이 연구회의 제6회 회합(1935년 5월 19일,구주제대농학부

에서,당번간사는 中田覺五郎교수)에서 촬영한 단체기념사진에는 오카지마교수와 하시모토시로(橋本士郎)의 얼굴이 보인다(江崎悌三 1955.5: 4). 하시모토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석주명에 관한 다른 글을 쓰면서 그가 손으로 제작한 <石宙明論文集>(山口大學圖書館 圖書番號4604 S6)(전경수 2013.6.30)을 소개하면서 언급 하였던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석주명의 득업논문'緖言'의 둘째 페이지에 "動物學敎室橋本士郎氏"로 등장한다.하시모토는 카고시마고농을 졸업한 후 동물학교실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석주명이 득업논문을 작성하였으며,석주명의 논문작성 과정에 도움을 준 분으로 이해된다.후일 그는山口女子師範學校博物科의 교수로 근무하였으며,이 학교가 야마구치대학(山口大學)에 통합되는 과정에 그의 자료들이 야마구치대학의 도서관으로 이전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이제 야마구치대학 도서관에 보관된 하시모토시로의 석주명에 관한 파일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되었다.석주명은 후일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던 논문들을 하시모토에게 보냈을 것이며,하시모토는 석주명이란 후배 학자의 연구업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의 업적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보관하였다.하시모토와 석주명의 관계는 오카지마교수를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兄弟子(아니데시)의 관계다.석주명이 카고시마고농에 입학했던 시점이 1926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석주명의 지도교수였던 오카지마교수가 석주명의 득업논문으로 나방이를 지도한 것은 그들의 일관된 관심이었던 농작물의 병충해와 직결된 것이었다. "아름다운 나비"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인 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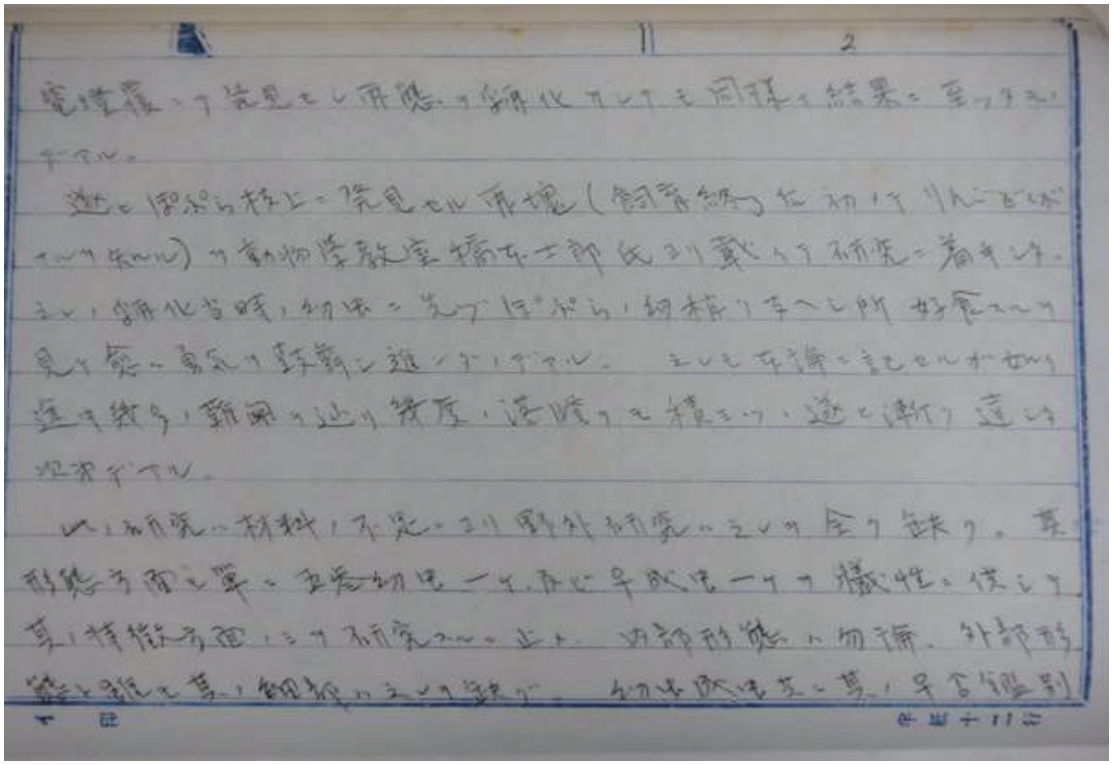


사진8:석주명의 得業論文'緖言' 둘째페이지 4째줄에"動物學敎室橋本士郎氏"라고 기록되어 있음.

석주명이 남긴 글들 속에서 인문사회과학적이며 민속학적인 내용이 드러나는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진다.카고시마고농의 훈습과정 속에서 특히 민속학적인 측면의 배경을 추적한다면, 나이토타카시(內藤喬)교수가 지목된다.식물학자였던 나이토교수는 민속학자로서도 맹활약을 펼쳤던 기록이 보인다. 그는 시마네(島根) 현 출신으로서, 카고시마고농 졸업후 곧바로 助手(1914년 8월부터 1915년 11월까지)로 근무하였다. 이후 시마네현과 나가사키현의 농학교에서 교사로서 근무 후

모교의 강사로 복귀(1922년1월)하였다. 조교수(1922년 10월) 승진 후, 1928년 4월부터 2년 6개월간 응용균학과 식물생리학연구를 위해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유학하였다. 1930년 12월에 교수가 되었으며, 戰後 카고시마대학 문리학부 교수(1949년)로 임용되었다. 연도를 감안할 때, 석주명이 카고시마고농의 학생시절에 유학을 나가기 전의 나이토는 조교수로 봉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카고시마대학/류큐대학 공동의 '유구제도 공동학술조사단' 단원으로 오키나와 얀바루 북쪽에서 식물채집 중 쿠니가미손에 있는 류큐대학요나(与那) 연습림사무소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던 글들을 보면, 그는 식물학자로서의 전문적인 논문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속학 특히 식물민속에 대하여 적지 않은 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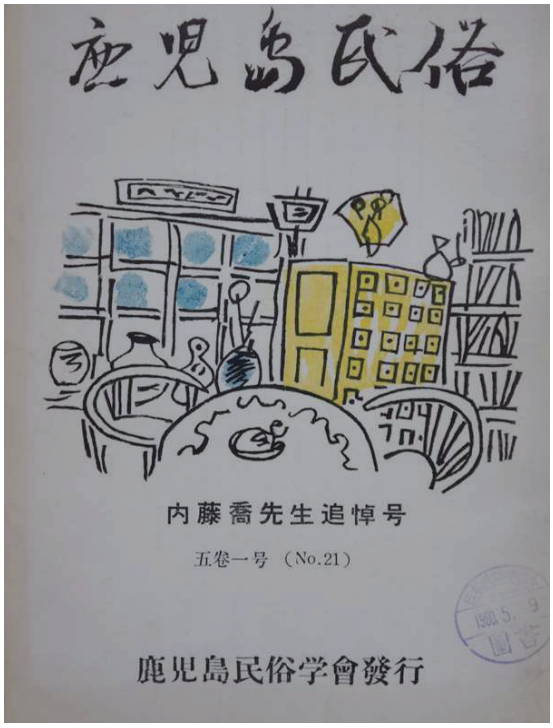


사진9: 內藤喬(1891-1957)(鹿児島民俗植物記刊行会 1964에서).
사진10: '內藤喬先生追悼号'<鹿兒島民俗>5권1호(1959.9.26. 발행). 表紙畫(內藤先生の書齋)는 越山正三.

나이토는 카고시마고농 학생시절부터 농촌에 대한 관심의 글(內藤喬: 1913.7.1)을 鹿兒島高等農林學校 校友會회지에 남겼을 뿐만 아니라, 교수가 된 이후에도 교지인 <あらた>에'土俗民謠'에 대한 중후하고도 독창적인 글을"喬生"이란 저자명으로 남기도 하였다(內藤喬: 1927.5.15). 'あらた'는 한자표기로 荒田(아라타)이며, 과거카고시마고농이 위치하고 있던 자리의 지명이다. 현재 鹿児島市의 荒田町의 이름으로 남아있다. 그의'토속민요'에 대한 안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土俗民謠の上下を取つて, 土謠と名づけ候. 土俗民謠の貴ぶべく愛すべきことは、旣に普く識者の認むろ所, 特に農民と親しみ, 土と離れ難い關係にある吾人にとりては, 此の方面の研究調査も必要と有候"(喬生1927.5.15: 42). 식물학 교수인 그가 민요에 대한 깊은 지식을 남긴 것은 식물학과 민속학의 접점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안목을 바탕으로 하여 카고시마에서 간행되었던 전문적인 민속학 잡지<はやと>의 창간호에'硫黃島의民間藥'에 대한 논문도 발표하였다(內藤喬: 1937.4.15). 전후 카고시마에서 재탄생 되었던 녹아도민속학회의 기관지 <鹿兒島民俗> 창간호에서 그가 카고시마지방에서 전개되었던'民俗研究小史'(內藤喬1950.1.30)를 정

리하여 발표하였음을 볼 때, 그는 전형적인 민속학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民俗植物'은 그가 전문적으로 전개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카고시마고농의 사제관계 속에서 전개가능한 민속학적 연대를 나이토타카시와 석주명의 인연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후주2). 식물학자와 동물학자 즉 자연과학전공자들이 인간의 삶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에 대하여 심도있는 관심을 실천하였던 사람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을 실천하기위한 방법으로 야학의 길을 택하였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이토교수가 사망한 뒤, 녹아도 민속학회에서는 <鹿兒島民俗>(5-1)잡지의 특집으로 "內藤喬先生追悼號"를 발간하였다. 그의 유고(內藤喬1959.9.26)를 비롯하여, 카고시마지역의 대표적인 민속학자들인 小野重郎. 柏幸秋. 村田熙등의 추도사가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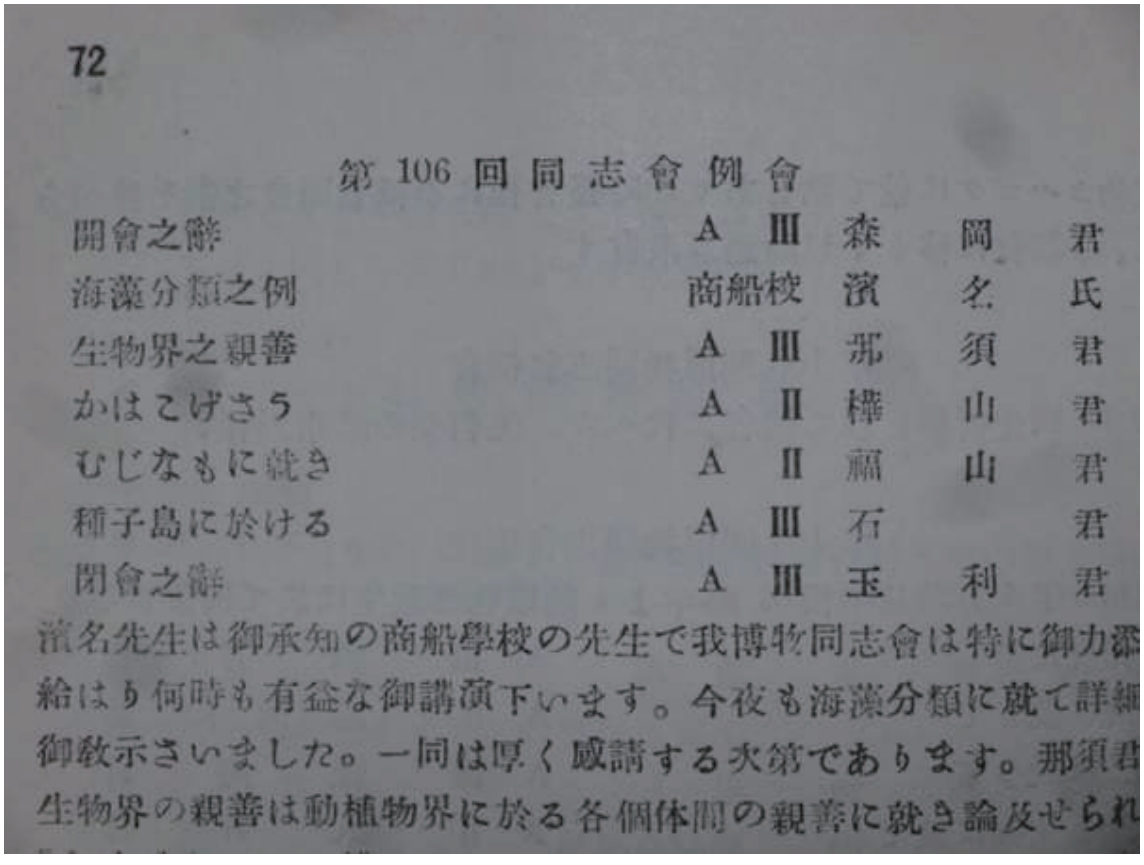
식물학자인 나이토가 민속학이란 분야에 입문하게된 결정적 이유는 놀라운 사실에 접목된다. 그는 "恩師故田代安定"(內藤喬1939.11.1)이란 한 편의 글을 남겼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나이토는 1938년 8월 8일과 9일 양일간 대만 남부의 屛東으로부터 潮洲로 갔다. 恒春試驗所에서 '칸카우' 동네 사이의 하천이 타시로안테이(田代安定)를 기념하는 '安定川'으로 명명되어 있음을 알았고, 동시에 대만의 원주민들은 '주이곤진'(ズイコンジン)이라고 부르는 대만의 해변에서 자생하는 '타시로이모'(タシロイモ, Tacca pimatifiok)의 전분을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한 사람이 田代라는 사실도 보고하였다(內藤喬1939.11.1: 6). 이 식물은 arrowroot라고 알려진 마샬군도의 전통적인 식용구근으로 보고된 바도 있다(Spennemann 1994). 타시로안테이(1857-1928)가 누구인가? 그는1896년 臺北에서 이노카노리(伊能嘉矩, 1867-1925, 일본 인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坪井正五郎의 제자)와 함께 대만인류학회를 창설하였다. 이노는 대만의 원주민들과 한족에 관한 인류학적 논고들을 남겼고, 민속학자 야나기타쿠니오(柳田國男)에게 인류학적 아이디어의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전경수2016.2.24참조). 타시로는 카고시마의 카지키 출신으로서, 1884년 農商務七等屬으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그를 방문하였고, 그곳 대학원에서 막시모비치교수로부터 식물학을 학습하였다. 1886년 동경제국대학으로부터 '南海諸島의 植物學과 人類學上의 取調'를 위촉받기도 하였다. 타시로는1896년 대만총독부의 민정국 技師가 되어 대만으로 이동하였으며, 1902년 대만 남부의 恒春熱帶植物殖育場을 겸무하였다. 그 후 사츠난(薩南, 카고시마남부를 말함)에 대한 토속지를 작성하여 <人類學雜誌>에 발표한 바 있다(田代安定 1889& 1892). 1911년부터1916년까지 카고시마고농의 강사로 촉탁되어 연간1회 열대 유용식물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內藤喬1939.11.1: 3).

이쯤 되면, 우리는 한가지의 상상을 시도할 유혹을 받게 된다. 카고시마고농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어렴풋하게 이어졌던 '田代安定-內藤喬-석주명'이란 인류학적 지식 전통의 맥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사츠마에서 제주도로 이어진 지적 연대의 맥락에 대한 문제의식을 외면할 수 없다. 물론 석주명의 어떤 글에서도 인류학과 타시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주목한 언급은 없다. 석주명에게 민속학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나이토교수의 활동과 업적을 검토하면서, 석주명에게 훈습된 인류학적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거론하고 싶은 것이다. 석주명이 민속학에 한정하지 않고, 방언학과 인구학 등의 광범위한 안목으로 제주도를 연구하였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할 경우, 나는 서슴지 않고 식물학자이며 동시에 인류학자였던 타시로로부터 이어진 카고시마고농의 학문적 분위기와 아울러 과거에 광범위하게 실천되었던 야학적 전통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오카지마 킨지교수와 하시모토 시로교수와의 곤충학을 배경으로 한 학문적인 관계는 석주명의 본업과 관련된 문제들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농학을 구성하는 식물학과 동물학을 배경으로 한 학자들이 한결같이 농업의 주인공인 농민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연구결과들의 생산이 석주명의 야학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싶다.

4. 카고시마고농 內 석주명의 족적: 실습과 得業論文

고등농림학교라는 제국일본의 교육제도내에서 이루어진 학습기회는 농학분야의 실용성에 중점적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식물학과 동물학이란 기초학문을 배경으로 농학으로의 응용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농업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양하였던 제도였다. 농학과는1부(식물학교실)와2부(동물학교실)로 나뉘어있었고, 석주명은2부에속하였다. 그는 農學科18회졸업생이고, 동기생 중 조선인으로는 金秉允(一部)이 있었다. 참고로, 경상북도 영덕 출신의 김병윤(1905년생)은 1957-1959년간 농림부차관을 역임하였다. 1926년 입학하였던 석주명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던 대상은 카고시마고농 내에 조직되었던 博物同志會(오카지마교수가 조직했던 것)가 발행하였던 會報와 석주명의 得業論文이었다. 이 두 가지 자료에서 드러난 석주명의 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博物同志會는 회보를 출판하였고, 그 조직의 例會의 내용이 회보에 게재되어 있다. 例會 第106回에 대한 기록의 내용에석주명과 관련된 기사가 있다.“石君の種子島に於けるの題下に島の位置, 學校牧場の位置及面積, 場內の模樣及び場內に於ける各種作業の方法等尙種子島特有の‘國けら節’を歌へ開く者をして種子島性調に彷佛たらしめたり”(匿名1928.9.20: 72). 석주명은 타네가시마(種子島)에 대한 실습내용을 보고하였으며,그 내용 속에는 타네가시마의 민요를 포함하고 있다. 석주명은 타네가시마 사람들의 노래를 습득하여 예회의 회의석상에서 그 민요를 불렀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해 카고시마고농의 교우회가 출판하는 잡지 <土>에 종자도에 대한 글을 에스페란토로 보고하였다(Seok 1928.7.5).



72

第 106 回 同 志 會 例 會

開會之辭	A III	森 岡	君
海藻分類之例	商船校	濱 名	氏
生物界之親善	A III	那 須	君
かはこげさう	A II	椿 山	君
むじなもに就き	A II	福 山	君
種子島に於ける	A III	石	君
閉會之辭	A III	玉 利	君

濱名先生は御承知の商船學校の先生で我博物同志會は特に御力添
給はり何時も有益な御講演下います。今夜も海藻分類に就て詳細
御教示さいました。一同は厚く感謝する次第であります。那須君
生物界の親善は動植物界に於る各個体間の親善に就き論及せられ

사진11: 博物同志會第 106 會例會의 “石君”

第107回例會(1928년 9월20일)에서 석주명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石君は其の二に移り台南, 高雄, 屏本, 新化, 嘉義, 阿里山, 台北等と巡を追ふて話した. 屏本での名産パパヤを試食した事やら豚, 鶏の台灣在來式去勢の見學等を話し, 阿里山での話しとしては獨立山のスパイラルや雨天の續きでトンネル破壞によりやむなく十字路の一小酒屋に宿り翌朝徒歩で岳を越えて汽車に乘り阿里山までに着した事, 其の他色色阿里山情景を話し台北に淚つて台灣西部一周の話は終つた. 最後に暖い台灣を背にして先輩諸兄よ, サラバヒ、朝日丸の甲板上で切れつつあるテープを見つつ. と石君の話は終つた”(匿名1929.1.25: 60). 지명의 기록들 중에서 “屏本”이라고한 것은 屏東(핑동)의 오식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핑동은 파파야의 명산지로 유명하다. 석주명은 대만의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여행을 하였으며, 대만의 실습현장에서 석주명의 활동은 축산학과 관련된 부분들임을 알 수 있다. 그가 대만의 서부를 답파하고 아리산을 등반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석주명은 대만의 서부를 일주하였고, 이어서 아리산을 등반하였다. 第109回例會가 동물학교실에서 개최되었으며, 石君은 “南薩旅行をして”를 발표(匿名1929.1.25: 60)하였다. “南薩”이라 함은 사츠마 지방의 남부를 일컫는 것으로서 현재 카고시마현 남부를 말한다. 第110回例會의 “例會記事”(匿名1929.9.20: 81)에는 石君이“開會の辭”를 담당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이상 박물동지회의 예회 기록을 볼 때, 카고시마고농에서 수학하였던 석주명은 1927년과 1928년에 집중적으로 대만과 카고시마의 南薩지방 및 타네가시마에서 실습과정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서 오-스미반도(大隅半島)의 끝에 있는 카고시마고농의 佐多農林實習場은석주명의 족적이 닿았던 곳이다. 석주명의 得業式은 1929년 3월 14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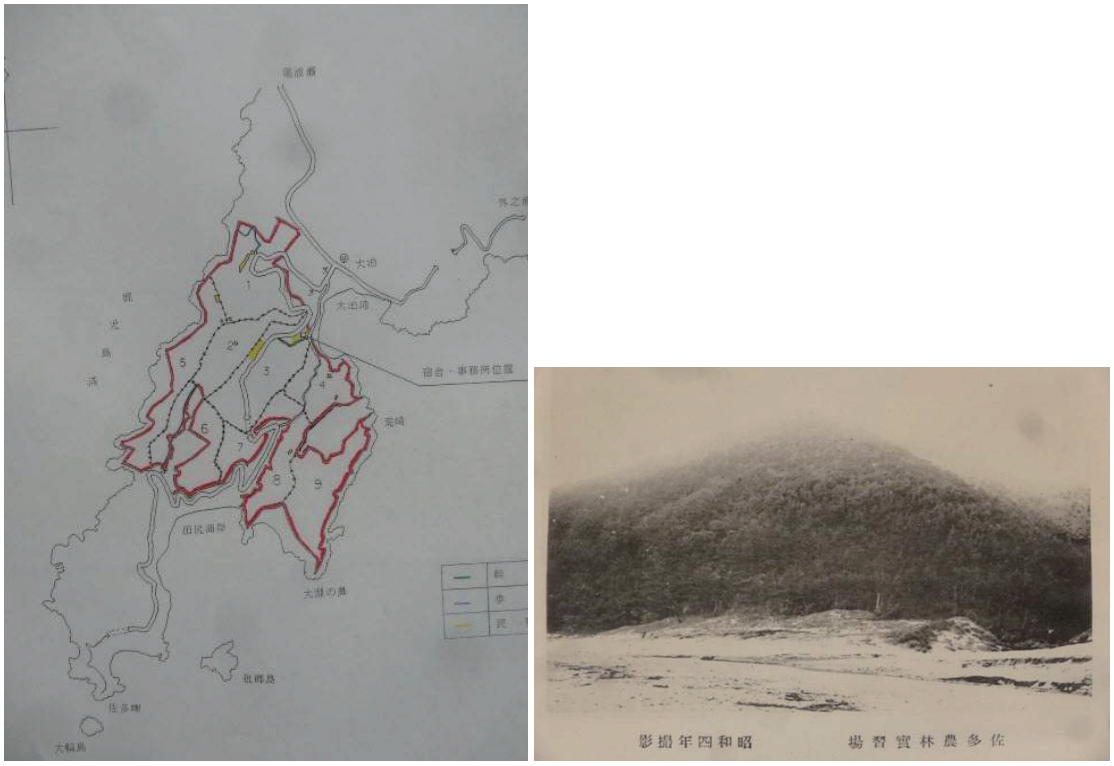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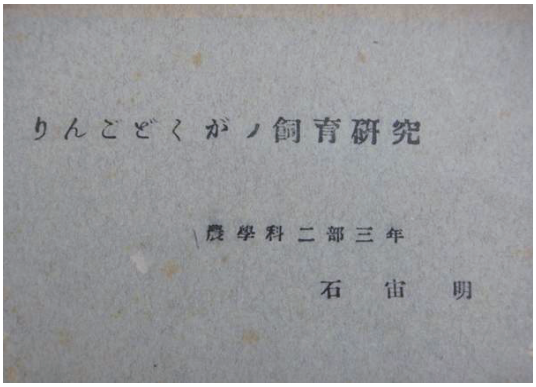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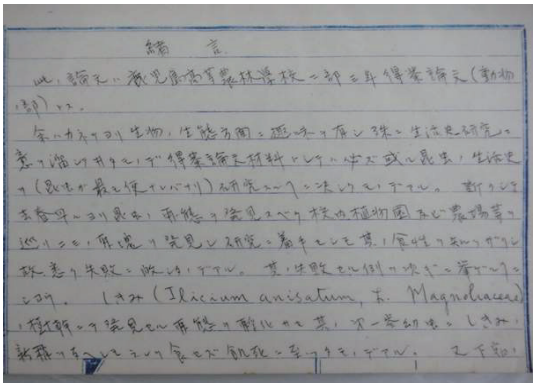
사진12&13: 佐多農林實習場 위치와 사진(1929년촬영) 校友會報 25집(1934년12월25일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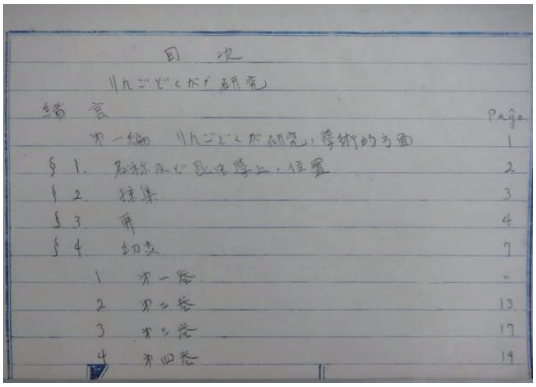



사진14&15: 오-스미반도(大隅半島)의 끝에 있는 카고시마고농의 佐多農林實習場(2014년10월현재). 오른쪽의 이층건물에서 석주명이 실습기간에 거처하였다. 이건물들은 2015년에 모두 철거될 예정이었다.

카고시마고 농에서는 득업을 위한 필수과정으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득업논문을 제출하였다. 석주명의 논문의 작성이 완료된 시기는 1929년 1월이었음을 알 수 있다.논문주제는 사과나무의 해충으로 지목되어 있었던 나방이("가")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보고서였다. 논문의 본문은 석주명이 원고에 작성한 자필이고, 표지는 공판으로 인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험과정의 사진과 관찰과정의 도판들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사진 16부터 23까지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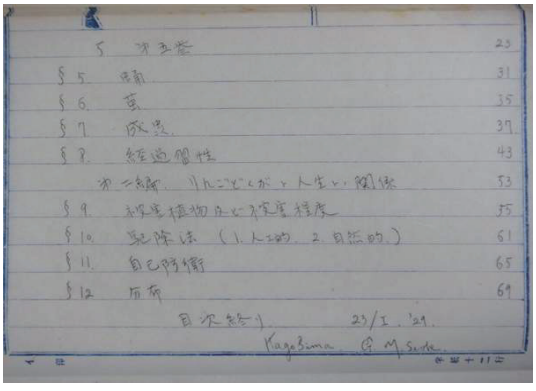


사진 16-19: 석주명의 득업논문 표지와 서언 그리고 목차(녹아도대학 종합연구박물관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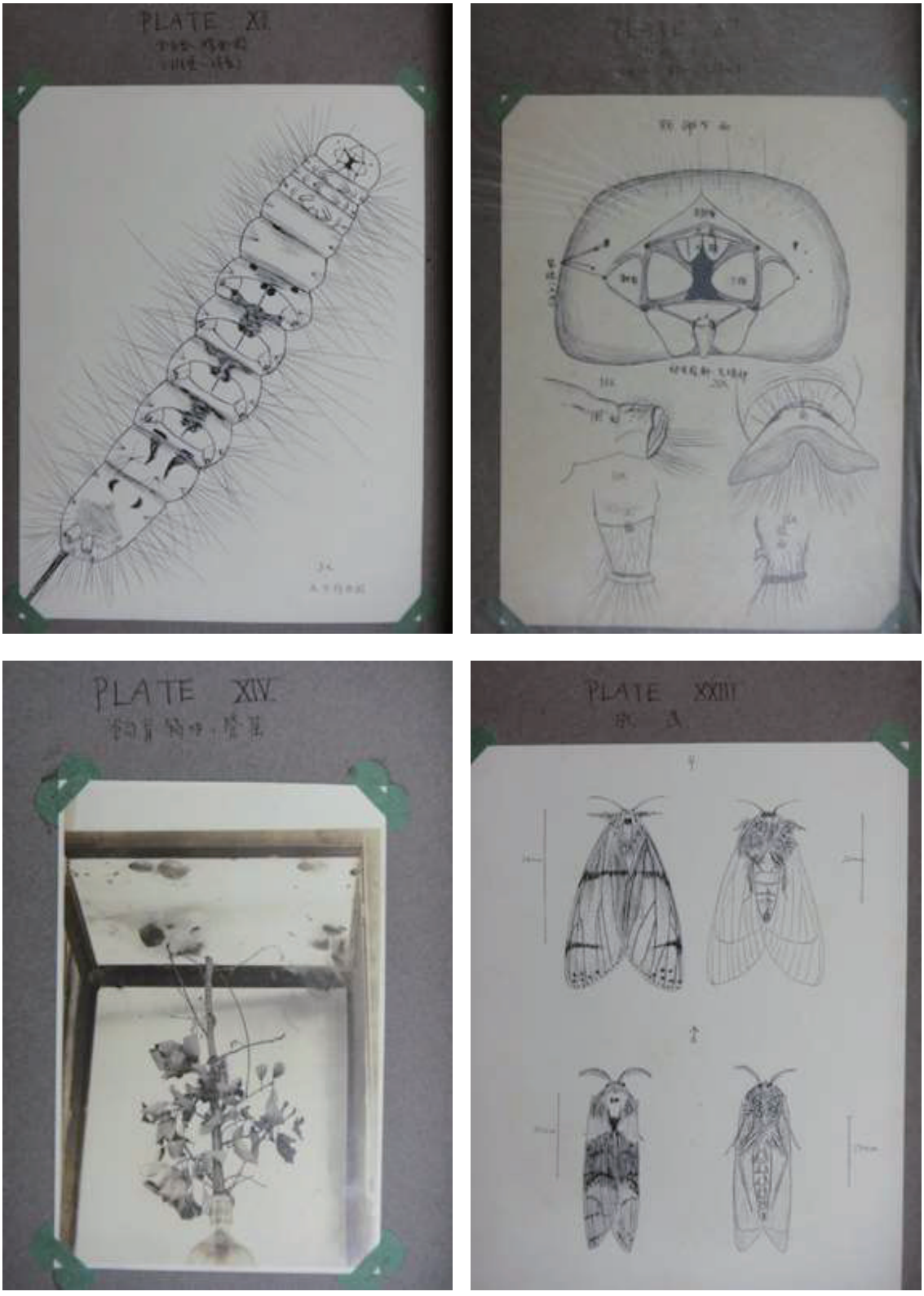


사진20-23: 석주명이 그리고 찍은나방 실험과정의 자료들(석주명의 득업논문으로부터)

5. 석주명 野學의 帝國的 무대와 해방공간의 국토구명사업

나는 석주명의 학문을 야학이라고 설정하였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나의 설명이 아직 충분히 제시되어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지면을 빌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고자 한다. 야학은 분과학문의 실천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분과학문이 아니다. 연구실이나 실험실 또는 도서관에서 연구를 위한 일차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일차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야학이라고 해서 실험실이나 연구실의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일차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야학이다. 야학을 실천하는 과정 전체를 野研(field research)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야외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을 野勞(fieldwork)라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록물 즉 노트는 野帳(field note)이라고 불린다. 즉 야학의 방법론을 실천하는 과정이 야연-야로-야장의 순서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학문분류 방법의 범주 내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분과학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과학문들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과학문에서도 원용이 가능하며, 전통적으로 그것을 가장 많이 실천해온 분야가 인문사회과학에서는 넓은 의미의 인류학이고, 자연과학에서는 지질학과 생물학이다.

그가 나비채집을 위해서 답파하였던 지역은 일본과 조선은 물론이고, 식민지말기에 제주도에서 야학방법론을 바탕으로 '濟州島學'을 시도한 결과가 <濟州島叢書> 6권으로 발간되어 있다. 그의 족적이 닿았던 영역은 제국일본의 세력 범위내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석주명의 족적이 닿았던 야학의 장소는 일본본토와 조선은 물론 대만에서부터 북만을 포함하고 사할린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국일본의 세력이 미치는 판도를 거의 답파하였던 경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카고시마고농시절에 하계실습을 위하여 대만의 서부와 아리산을 답사하였으며, 교원이 된 이후에는"朝鮮開城中學校教諭"의 자격으로 두 차례(1939.3.27/1940.8.5)나 하얼빈의 哈爾賓博物館을 방문한 기록을 보인다. 일제식민지시기를 통하여 조선인으로서 석주명만큼 넓은 지역으로 야학을 실천하였던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해방후, 국립과학박물관의 동물학부장으로서 석주명은 조선산악회(후일 대한산악회) 주최의 국토구명을 위한 종합학술조사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다도해와 울릉도 및 덕적군도를 방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사진24: 합이빈박물관전경(松本於菟男1937.4.1: 454)

합이빈박물관은 자연과학의 영역에 특색을 지닌 박물관으로서 그 기초는 1922년 러시아의자금으로건설되었던 中東鐵路(러시아어: Китай ско-Восточная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축약어 КВЖД, 1897년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1903년 완성. 이하와 같이 명칭 변경이 있었음. 大清東省鐵路, 1897-1920年; 中國東方鐵路, 1920-1932年, 北滿鐵路1932-1945年, 中國長春鐵路1945-1952年) 당국의 25주년기념축하회를 계기로 東方文物研究會에 자금보조를 하면서 박물관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도서관, 농사시험장, 송화강생물시험장 등을 경영하였다. 1929년 東省特區教育廳 관할이 되었다가, 1931년東省特別區立文物研究所로 개칭하였다. 이후 중화민국정부의 자금지원이 약화되면서 축소되었다가, 1932년 만주사변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만주국이 건국된 후, 1936년 濱江省立文物研究所로 개칭되었다가, 1937년 만주국 국무원직속으로 大陸科學院이 설립되면서, 대륙과학원분원(일명합이빈박물관)이 되었다. 1937년 4월 현재, 소장은 梁禹襄(濱江省公署教育處長), 부소장은 福島一郎, 동물학담당 루카슈킨, 지질학담당 아니에트박사, 고고학담당 뽀노소프, 식물학담당 후에루소프 등 직원 30명이 있었다. 건물지하에 경제학부4실(북만 각지의 농구류 등 7,490점), 제1실고고학부(주대화폐, 한대청동기, 석기류, 무기류, 遼金유물, 발해동경성지 유물, 金白성지 유물 등 12,584점), 제2실인류학/제3실토속학(종교상의 문화에 관한 것, 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것, 예술품과 일상기구로 3분류하여 도교, 몽고/서장불교, 샤만교 관련유물,청대 황족의복, 악기, 카톨릭교도의 낙인 등 6,297점), 제4실지질학(고생물학관련 맘모스화석 등4,008점)/동물학(바이칼호부터 우수리까지 포함하는 지역으로부터 5,679점)/식물학(4,175점)으로 조직되었고, 식물원과 동물사육소 및 채원(采苑)이 부설되었다(松本於莵男編1937.4.1: 454-455). 전자의 1937년 4월 현재의 내용과 비교하여 1941년도 11월의 내용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哈爾濱博物館노卷(三都博物館메구리: 2)'에 의하면, 1941년 11월 현재 이 박물관의 정식명칭은 國立大陸科學院哈爾濱分院이며, 책임자는 主事 福島一郎(후주3)이다. 분야별로는어류학(石渡達六郎, 후주4), 박물학(北川正夫, 후주5), 고고학(奥田直榮, 후주6), 인류학(뽀노소프), 경제학(제루나코프), 지질학(아-넬드), 동식물학(니키친)등이 있다. 수집품으로는 다나리야, 오로촌, 소론고-도, 부리야-토 등 각 민족인형이 수집되어 있다. 760년전 金國 大定연간의 寶勝寺僧正의 묘비가 있다. 수백 종류가 넘는 라마경전, 각종불상, 종교 참고자료가 소장되어있다.농산물,임산물,수산물자료들이풍부하다(大阪朝日新聞, 北滿洲版昭和16년 11월 8일자, 土). 1937년 4월과 1941년 11월 사이의 차이는 분야별 책임자들의 일부가 교체되었던 것 같다. 고고학과 인류학을 겸무하였던 뽀노소프의 업무가 분리되어서 뽀노스프는 인류학을 전담하고, 고고학은 일본인 奥田直榮가담당하는 변화를 보였다. 다른 분야에도 일본인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주명보다도 먼저 이박물관을 방문한 기록을 보이는 인류학자들로는 토리이류조(鳥居龍藏)와 이즈미세이이치(泉靖一)가 있다.

석주명은 1943년부터 제주도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내용이 기록된 문서에는 京城帝國大學 附屬生藥研究所 濟州島試驗場라고 소속을 밝혔다. 그는 제주도에서 1936년에 1개월간 자료를 수집했던 경력이 있었고, 1943년부터 생활을 시작하였다(石宙明1945.2.15: 40). 이때 경성제대의 학부에 있었던 직원명패(출근여부의 표시를 하기 위한 것)를 부착한 판에는 석주명의 명패가 있었고, 그의 명패는 항상 뒷면으로 걸려 있었다는 권숙표(1920-2010) 선생의 증언이 있었다. 명패가 뒷면으로 걸려 있었다는 것은 석주명이 제주도시험장에 근무하였기 때문이었다. 경성제대 생약연구소의 후신인 현재의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또한 석주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업적평가를 해야 하는 관계에 있음을 외면할 수 없다.



사진25: 國立科學博物館 건물(杉市郎平1910.12.4). 이 사진은 1910년 統監府가 總督府로 바뀐 직후에 찍힌 사진이며, 이 건물은 육이오전쟁중 인천으로부터의 함포사격 당시 소실되었다. 서울 목멱산의 북사면에 있었다.

해방공간의 석주명은 수원농사시험장에서 잠깐 근무한 뒤에, 서울에 있었던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1946년9월). 육이오때 불귀객이 되기까지 그가 본직 이외에 가장 열심히 작업을 하고 기록으로 남은 족적이 조선산악회(후일대한산악회) 주도로 시행되었던 국토구명사업이었다. 1946년 2월-3월에 시작되었던 제1회를 제외하고, 석주명은 대원으로서, 부대장으로서, 대장으로서 국토구명사업에 참가하였다. 그가 참가하였던 국토구명사업의 상세한 연보는 다음과 같다: 제2차오대산·태백산맥학술조사(1946년 7월 25일-8월 12일), 제3차소백산맥학술조사부대장으로 참가(1947년 7월 12일-7월 25일), 제4차울릉도.독도학술조사 참가(1947년 8월16일-8월 28일), 제5차차령산맥학술조사대장으로 참가(1948년 8월 17일-8월 29일, 제주4.3사건으로 계획무산), 제6차선갑도·덕적군도학술조사대장으로 참가(1949년 6월 11일-6월 17일), 제7차다도해총해학술조사대장으로 참가(1949년 8월 9일-8월 24일).

본고에서는 석주명이 답사대의 대장이 되어서 방문하였던 덕적군도의 답사기록(1949년 6월 11일부터 17일까지)을 소개한다(石宙明1950.6.1). 대편성: 대장조선산악회부회장 石宙明, 지질반국립지질광물연구소지질과장 玉昇植, 식물반사범대학교수 張亨斗/동대학생물학과학생 李會雲, 동물반세브란스의대교수 尹益炳/국립과학박물관동물학부장 石宙明/동연구원 李熙泰, 의학반여자의대교수 趙重三/동 金榮澤/동 부속의원의사 玄玉卿/동 鄭奎淑/동 朱明熙/동 曺圭勤, 언어반문리대과대학교수 李崇寧/경기상업중학교사 金龍卿, 사학반문리과대학교수 柳洪烈, 사회반문리대학생 李重年, 기타본부, 보도반, 일반참가반(이상전원56명). 코-스:11일. 7시10분서울역발8시50분인천역착, 9시20분인천항발13시05분덕적도잇개착, 13시40분진리착. 부근조사채집후민박.12일. 9시발도보로쑥개-능굴-국사봉-벗개-희룡동-西浦里야영. 13일. 10시일반참가자와작별. 11시15분서포리를기동선으로발. 13시池島착. 15시50분池島발 16시50분白牙島착, 민박. 14일9시30분白牙島발 10시10분蔚島착 14시40분蔚島발 16시30분仙甲島착,야영. 15일仙甲島조사채집. 16일12시10분仙甲島발 13시40분文甲島착 17시50분文甲島발 18시50분,蘇爺島착, 민박. 17일14시蘇爺島발 18시仁川착. 특이사항:宋在順면장의 도움. 답사대상 도서의 총인구는 581명. 수산업으로 부유한 지역. 西浦里 야영시 초등학교의 張賢선생 도움으로 캠프파이어. 언어반에서 지방민요 풍속조사. 문갑도에서는 의료반이 시료. 초등학교에서 튜베르크린반응검사. 십여명이 함께 다님. 소야도에

서는 11명의 姓타령(각 성이 주제). 이숭녕교수는 언어지리학적인 접근으로 채집된 말수가 약2천개에 달했다고 보고 .동물, 식물, 지질, 의학, 문화반은 3일동안 덕적도와 소야도에 만참가하였다. 민요도 채집되었다(후주3).

6. 결어: 감동학습

한 학자의 족적을 따라서 학사를 정리하는 작업과정을 위한 선행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연구대상에 대해서 감동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학자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기회를 최초부터 박탈당한다. 가능하면, 감정이입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몰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濟州島叢書>가 증언하고 있는 언어의 의미를 독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 단지 2년 반 정도의 제주도 체류 기간 동안에 그것도 대동아전쟁말기 최전선의 방어선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 제주도에서 석주명이 무엇을 위하여 왜 그러한 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는 카고시마고농의 단기간 실습에도 당지에서의 野勞(fieldwork)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남기고 있다. 종자도에서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의 민요를 배워서 예회의 발표시간에 그 민요를 열창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스스로 습득하였던 에스페란토로 원고를 만들어서 교내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그는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성제대의 생약연구소 실습장에서 임무로 부여된 생물학적인 작업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주민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우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야학자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가 제시한 <濟州島叢書>의 6권은 전체의 일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언학의 개척자였던 방종현교수가 석주명의 <濟州島方言集>에 대한 신간평(方鍾鉉 1948.3.12)에서 석주명의 작업에 대하여 극찬한 사실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석주명은 언어학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주명의 작품이 그 방면의 전문가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것은 석주명 야학의 가치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의 명을 재촉하였던 육이오전쟁이 없었더라면, 그는 총서의 숫자를 더 채웠을 것이다. 당지의 주민들과 관계가 있는 자연적인 그리고 인문사회과학적인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세밀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는 것이 야학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석주명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카고시마고농의 실습장이 있는 연습림 근처의 오토마리(大泊)에는 '코고이돈'이라고 불리는 산성이 있다. 석축방식을 보건데 神籠石山이라는 朝鮮式의 山城이다(下野敏見 1995.3.10: 21). 나는 사다의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석주명이 이 산성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한 조사에 한 하지 않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실천하였던 사람이 석주명이었기 때문이다. 석주명이 실습기간 동안에 거처하였던 사다실습장의 이층 건물에는 세 개의 방이 있고, 1층에는 다다미방이 하나 있다. 연습림에 묵는 동안의 학생들은 인근의 오토마리주민들에게 부탁해서 간단한 취사를 하였다. 평소에는 주민들이 숙소관리를 하였다고 한다. 타네가시마의 실습기간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민요를 배워서 귀교한 후 보고회에서 그 민요를 열창하였던 석주명은 단순히 곤충에 관한 흥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눈은 주민들의 생활에 깊숙히 파고들었고, 주민들의 생활을 배우려는 그의 노력은 곤충학을 포함한 야학으로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호기심과 감동이 야학의 선행조건임을 알게 된다.

카고시마고농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것처럼 곤충학은 응용과학으로서의 농학에 부속된 것이었고, 곤충인 나방을 연구하여 졸업논문을 작성하였던 석주명의 학업과정으로부터 근대화 과정에

참여하였던(또는 인정되었던) 학문이란 것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점을 직시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학문이란 것의 존재 의미는 근대화를 위한 응용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았던 제국일본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면, 석주명의 나비연구는 자신이 받았던 교육과정의 실용성의 궤적을 뛰어넘는 진리추구 자체의 학문성에 접목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석주명의 나비연구가 당시 영국의 왕립학회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카고시마고농의 은사들로부터 학습하였던 교육과정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응용과학이었지만, 석주명이 궁극적으로 터득한 것은 진리탐구의 학문정신이었음을 배우고자 한다. 야학의 방법론으로 학문을 실천하면서 동물학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인 식민지의 상황 속에서도 제주도의 인문사회과학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업적을 남긴 것은 석주명의 야학이 추구하였던 학문정신을 돋보이게 하기에 충분하다. 지금 석주명을 재조명하는 의미는 진리탐구에 목적을 둔 학문정신이 아쉬운 시대의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몸부림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싶다.

후주: 본고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수집의 과정에서 녹아도대학종합박물관과녹아도대학도서관의 담당자들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 이 지면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개인적으로는 녹아도대학에서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한 송다정박사에게 감사드린다.

1) 岡島銀次의 이름으로 발표된 글들의 목록(일부). 석주명의 학습과정에 훈습되었을 것이다.
1923.7.15 “所感”, あらた2: 2.
1924.1.25 “動物界に於ける飛行研究”, あらた6: 2.
1924.4.30 “動物界に於ける飛行研究(二)”, あらた7: 2.
1927.6.1 “霧島地方に於ける蝶類の分布”, 博物同志會會報1(1): 18-22.
1929.1.25 “蜘蛛合戰を視るの記”, 博物同志會會報1(4): 41-42.
1930.4.30 “大如鏡”, 博物同志會會報2(6): 112.
1930.4.30 “邦産撚翅蟲の寄生”, 博物同志會會報2(6): 121.
1932.3.25 “鹿兒島縣下に於けるコムクドリの群飛調査”, 博物同志會會報3(9&10):70-80.
1933.3.31 “サシベ（タカ）の渡行路に關する調査”, 博物同志會會報3(11): 37-39.
1933.3.31 “イボタカヒガラムシ木屑に寄生す”, 博物同志會會報3(11): 58.
1933.11.30 “鹿兒島縣産蝶類目錄及其分布表”, 博物同志會會報3(12): 6-12.
1933.11.30 “メダカの方言”, 博物同志會會報3(12): 45-59.
1934.11.23 田之神. 鹿兒島: 鹿兒島高等農林學校博物同志會.

2) 鹿兒島高等農林學校校友會가 간행하였던 <土>(1927년12월 20일 창간) 잡지에는 1930년대에 발간되었던 內藤喬의 글과 사진들이 더 많이 게재되어 있다. 아래에 그 목록을 게재한다. 다만 <土>의 제9호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잡지는 녹아도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28.7.5 “實習雜感”, 土 2: 171.
1933.7.5 “帶歐落葉集(短歌)”, 土7: 90-92.이때부터 編輯兼發行者가 黑木重也로부터 內藤로 바뀌었다.
1934.7.9a “瑞西아루푸수-융푸라우(口繪)”, 土8:
1934.7.9b “七夕祭토田園趣味”, 土8: 1-15.
1936.7.10a “老苹果樹ㄴ滿開(寫眞)”, 土10:
1936.7.10b“玉里島津邸ㄴ池(寫眞)”, 土10:

1936.7.10c “菖蒲토端午노節句”, 土10: 302.
1937.7.10a 新島(燃島)行雜記”, 土11: 139.
1937.7.10b “小占根海濱노風光(寫眞)”, 土 11:.
1937.7.10c “미시싯피-河(寫眞)”, 土11:.

3) 福島一郎이다. 그의 글로는 “石人溝の蹟金代古墳”, 滿洲觀光5(4): 7~9가있다.

4) 石渡達六郎는 1911년 東京出身으로 政治家 石渡敏一의 六男이다. 日本哺乳動物学会에서 활동하였고, 慶大教授를 역임하였다.

5) 北川政夫(1910-1995). 만주대련에서 출생하였고, 동경제국대학 식물학과를 졸업하였다. 대륙과학원연구관을 역임하였다. 중국 동북부의 식물상에 대한 연구가 깊다. 많은 식속을 발견하여 등록하였다. 1947년 농림기술연구소에 들어갔다가 1950년 横浜国立大学교수가 되었다. <關東州植物誌>(1927), <滿洲國植物考>(1939), <熱河省産新植物>(中井猛之進과共著, 1934), <生きてぃる植物の四季>(宮脇昭과 공저, 1958) 등식물학 전문서와<ソ滿脫出記>(1948), <關東軍壞滅>(1949), <苦力に変して一ソ満抑留記>(1983)등의 수기류가 있다.

6) 奥田直榮의 고고학적 논문들과 서적들로 수집된 일부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936.3 “空堀らしき溝を持つ竪穴住居遺跡: 東京附近竪穴住居趾所見”, ミネルヴァ 1(2): 39-40.
1936.8 “東京市西部に於ける古墳時代末期聚落の規模(一)”, ミネルヴァ1(6): 27-28.
1936.9 “東京市西部に於ける古墳時代末期聚落の規模(二)”, ミネルヴァ1(7): 29-30.
1936.12 “東京市西部に於ける古墳時代末期聚落の規模(三)”, ミネルヴァ1(8): 41-43.
1939.6 “顧郷屯の二次的堆積”, 人類學雜誌54(6): 258-260.
1939.10 “北満松花江靖附近發見の遺物”, 人類學雜誌54(10): 459-463.
1961.4 絵巻物と井戸の発掘. 東京:角川書店.
1979. 天目.名古屋 : 德川美術館等.
1989. 古瀨戶(日本陶瓷大系6).東京:平凡社.

7)덕적군도학술조사 후의 관련출판물은 <新天地> 5(6)에 게재되었다.
玉昇植1950.6.1 “德積群島의地質”, 新天地5(6): 235-236.
李熙泰1950.6.1 “德積群島의動物”, 新天地5(6): 236-237.
尹益炳1950.6.1 “德積群島의軟體地質”, 新天地5(6): 238-239.
趙重參1950.6.1 “德積群島의保健狀況”, 新天地5(6): 239-241
李崇寧1950.6.1 “德積群島의方言硏究”, 新天地5(6): 241-247.
柳洪烈1950.6.1 “民族海外活動의要地이던德積島”, 新天地5(6): 247-253.

참고문헌

김인수2016 “농석이해영의사회학”, 한국사회학50(4): 27-65.
方鍾鉉 1948.3.12 “新刊評:石宙明의‘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
石宙明1945.2.15. “濟州島の蝶類”, 科學時代3(1.2): 40-42.
1947.12.5. 朝鮮나비이름의由來記. 서울: 白楊堂. pp. 61.
1947.12.30 濟州島 方言集.서울:서울신문사출판부.
1950.6.1 “德積群島의學術調査隊報告”, 新天地5(6): 233-234.
1950.6.1 "천연기념물보존에 대하여, 문화지표", 新天地5(6).
전경수 2001 “石宙明의 學問世界: 나비학과 에스페란토, 그리고 濟州學”, 民俗學硏究8: 7-21.
2009.11.30 "제주도학의 선구자, 석주명", 화산섬, 제주세계자연유산: 그가치를빛낸선각자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pp. 97-112.
2013.6.30 "石宙明의 非命橫死와 學界損失: '육이오' 정전협정 60주년의 회고", 近代書誌7: 353-379.
2016.2.24 “伊能嘉矩の臺灣硏究に關する方法論的再檢討: <巡臺日乘>(1897年)の精讀を通して”, 歷史と民俗32: 215-254.
최낙진 2007.6.15 “석주명의 ‘제주도총서(濟州島叢書)’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52: 305-333.
江崎悌三 1955.5. “九州病害蟲硏究會노回顧”, 九州病害蟲硏究會報 1: 1-7.
杉 市郎平 1910.12.4合併新土朝鮮寫眞帖.東京:元元堂書房/京城:新半島社.
田代安定1887.7 “沖繩縣下宮古島及沖繩島對譯方言集”, 人類學雜誌3: 323-328.
1888.6 “琉球西表島古見村노土器”, 人類學雜誌4: 413-414.
1889.3 “太平洋諸島經歷報告”, 人類學雜誌5: 156-163.
1889.4 “太平洋諸島經歷報告”, 人類學雜誌5: 187-191.
1889.5 “太平洋諸島經歷報告”, 人類學雜誌5: 213-219.
1889.6 “太平洋諸島經歷報告”, 人類學雜誌5: 263-268.
1890.7 “沖繩縣八重山列島見聞錄”, 人類學雜誌 5: 308-315.
1890.10“薩南諸島の風俗餘事に就て”, 人類學雜誌6: 18-22.
1890.11 “薩南諸島の風俗餘事に就て”, 人類學雜誌6: 46-55.
1890.12 “薩南諸島の風俗餘事に就て”, 人類學雜誌6: 78-89.
1891.3 “薩南諸島の風俗餘事に就て”, 人類學雜誌6: 191-195.
1891.4 “沖繩諸島結繩記票考”, 人類學雜誌 6: 254-259.
1891.5 “沖繩諸島結繩記票考”, 人類學雜誌 6: 296-301.
1891.7 “沖繩諸島結繩記票考”, 人類學雜誌 6: 345-349.
1891.8 “沖繩諸島結繩記票考”, 人類學雜誌 6: 373-376.
1891.8 “소로몬叢嶋土人노骨格”, 人類學雜誌6: 396-397.
1892.1 “사모아群島土人노風俗”, 人類學雜誌7: 116-123.
1892.2 “사모아群島土人노風俗”, 人類學雜誌7: 156-163.
1892.4 “사모아群島土人노風俗”, 人類學雜誌7: 230-235.
1892.5 “사모아群島土人노風俗”, 人類學雜誌7: 253-258.
1892.6 “太平洋諸島經歷餘報”, 人類學雜誌 7: 283-289.

1892.6 “太平洋諸島土人器標品解說”, 人類學雜誌7: 295-306.
1892“鹿兒島縣下大島群島雜記”, 人類學雜誌85호
下野敏見 1995.3.10 “佐多ㄴ古代史오考에루-民俗토歷史토ㄴ間-“, 佐多町ㄴ民俗,下野敏見 編. 鹿兒島縣:佐多町敎育委員會. Pp. 10-32.
松本於莵男編1937.4.1 滿洲國現勢(康德四年版). 新京:滿洲弘報協會.
內藤喬1913.7.1 “農村自治の補助機關”, 校友會報1: 22-28.
1927.5.15 “土謠に就て”, あらた15: 42.
1937.4.15 “硫黃島の民間藥”, はやと1: 4-5.
1939.11.1 “田代安定先生の跡を訪ふ-恒春林業試驗支所雜記”, あらた33: 1-10.
1947.9.22 “屋久島(詩)”, 南日本新聞
1948.5.23 “禮文島のトド島”, 南日本新聞
1948.7.19 “アルプスの旅”, 南日本新聞
1950.1.30 “鹿兒島ㄴ於케루民俗硏究小史”, 鹿兒島民俗 1: 27-28.
1950. “屋久島民俗植物誌”, 鹿児島国立公園候補地学術調査報告後編 pp. 211~223.
1956.4.1 “奄美大島の精神文化斷片-言葉, 民俗, 民謠について”,鹿兒島大學南方産業科學 硏究所報告1(1): 85-93.
1960. “佐多民俗植物小誌”, 鹿兒島民俗22:
1961 “鹿兒島縣農家ㄴ正月習俗の”, 鹿兒島民俗23:
1964.2.5鹿児島民俗植物記(遺稿).鹿児島: 鹿児島民俗植物記刊行会.
柳田國男 1925.4.24 海南小記.東京:大岡山書店.
匿名1928.9.20 “本會例會記事”, 博物同志會會報1(3): 70-72.
1929.1.25 “博物同志會例會記事”, 博物同志會會報1(4): 59-60.
1929.9.20 “例會記事”, 博物同志會會報2(5): 81.
1930.4.30 “卒業生消息”, 博物同志會會報2(6).
大阪朝日新聞(北滿洲版)昭和16년 11월 8일자(土).
I記者1949.11.7 “世界的 나비學者 石宙明氏篇”, 週刊서울 60: 9.
Seok, Gh.M. 1928.7.5 “SENTOJI EN INSULO TANEGA”, 土2: 177-180.
Spennemann, Dirk H. 1994 “Traditional Arrowroot Production and Utilization in the Marshall Islands”, Journal of Ethnobiology 14(2): 211-234.